

제 79차 대의원회의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의결

군인공제회는 12월 7일 서울 도곡동 군인공제회관 30층 대회의실에서 양원모 이사장을 비롯한 각 군 회원 대표 37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79차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와 '2011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심의 의결, 기타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되었다.

군인공제회는 2011년도 목표이익을 3,120억 원으로 세웠으며, 이 중 회원저

축이자와 회원복지비 등 2,770억 원을 지급하고 난 352억 원을 당기순이익으로 설정하였다. 본회의 목표 이익은 일반기업의 당기순 이익에 해당된다.

이러한 목표는 내년도 세계경제가 경기부양효과 감소 등으로 성장률이 하락 될 것과 글로벌 경기둔화와 내수위축 등으로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약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보수적으로 세워졌다.

군인공제회는 2011년도

투자전략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금융사업은 주식시장의 흐름에 따라 주식투자 비중을 조정하고, 유동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적정 채권 보유수준을 유지하며, 구조화 채권 투자로 추가수익을 올리는 한편 해외투자 발굴 확대 및 환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건설사업 투자는 진행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적기 수익실현 목표를 설정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단기·소규모 고수익 창출 가능사업을 개발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성장 동력사업을

발굴 투자할 계획이다.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 중 한 회원은 "군인공제회 회원들의 저축금을 높은 이자로 불러준데 대해 회원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고 하면서, 차입금 규모와 대손상각 등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 군인공제회 임직원의 연봉이 동종 업체인 일반기업이나 타 공제회에 비해 적다는 사실과 "실적에 따른 실질적인 성과급 지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회원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 회계사 등 전문직 직원수와 공제회가 군 행사 등에 지원을 하고 있는



▲ 회의에 참석한 군인공제회 양원모 이사장과 대의원이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안함 사태 시 어떤 지원을 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군인공제회는 대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였으며, 이어서 양원모 이사장은 "천안함 사태 때에도 1억 원을 지원했

다."고 밝히고 "군인공제회 전 임직원은 16만 회원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기 위해 내년에도 최선을 다 할 테니, 회원들께서도 분회 임직원을 믿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달라."고 당부했다.

만 평 그림 | 백우현 화백

세계경제와 국내경제 성장세가 약화될 것으로 보고 보수적으로...
 2011년도 목표이익 3,120억
 이 연탄으로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금융, 건설사업 새해에도 기대합니다
 군인공제회 자원봉사단
 좋은 겨울 걱정했는데 고마워요
 회원 저축금을 높은 이자로 불러줘서 감사해요

이웃에게 사랑과 희망을! '사랑의 연탄 나눔' 자원봉사활동



▲ 분회 임직원 및 가족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군인공제회 자원봉사단은 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23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거주하는 영세 독거노인과 장애 가정, 기초

'사랑의 연탄 나눔' 자원봉사 활동을 벌였다. 이 행사는 사회환원활동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에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게 사랑과 희망을 나눔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날 분회 임직원 및 가족 등 50여 명은 구슬땀을 흘리며 5,000여 장의 연탄을 손수 전달했다. 상계동에 거주하고 계신 김분필 할머니(84세)께서는

"뜻하지 않게 도움을 받게 되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며 "여러분의 도움으로 올 겨울은 따뜻하게 지내게 될 것 같다."고 좋아하셨다. 이 행사를 계획한 군인공제회 진영호 금융사업이사(52세)는 "이 번 '사랑의 연탄 나눔' 자원봉사 활동이 이웃과 나눔의 기쁨을 함께 느끼며, 직원간 친목과 소통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www.mmaa.or.kr

회원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글로벌기업 더 큰 미래를 향해 전진해 나아가겠습니다

군인공제회가 신용평가 기관인 「NICE D&B」로부터 공공 입찰용 기업신용 평가에서 '신용등급 최우수기업 AAA'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군인공제회의 도전이 계속되는 한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회원 제일주의 실현을 위해 더 아름다운 미래를 꽃 피우겠습니다.

AAA

피평가 기업의 1% 기업에게 부여되는 4년 연속(2007년~2010년) 신용등급 최우수 기업 선정!

군인공제회 자본의 건전성, 지속적인 이윤창출 능력, 건전한 지배구조 등이 유수의 국내·외 신용평가 기관으로부터 공인

군인공제회
 MILITARY MUTUALS ASSOCIATION

| 군인공제회 산하사업체 | • 제일식품 • 대양산업 • 대신기업 • C&C • 공우ENC • SOCS사업관리단 • 대한보지신타(주) • 한국캐피탈(주) • 용신(대행)주 • 덕평만경개발(주) • 고려중합물류(주)

신고합니다! 추억의 '맛스타' 후임 '생생가득'

내년 1월 1일부터 군납 및 시중 판매



공모에는 대학생들을 비롯한 일반 고객들이 많은 관심과 호응을 보였다. 인터넷을 통한 조회 건수만도 1만 1천여 건이었으며, 응모에는 총 1,200여 명이 응모하였다.

새 제품명 심사는 국내 디자인 학과 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 심사위원단이 맡았으며, 최종적으로 국군기무사령부 소속의 박희중(24세) 병장이 제안한 '생생가득'이 선정되었다.

신 제품명으로 선정된 '생생가득'은 「자연의 햇살을 풍부하게 받고 자란, 짙고 생기발랄하며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연스러운 이미지」라는 뜻으로서, 우리 자연의 순수함과 생동감을 그대로 담아 신뢰성 있는 제품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겠다는 제일식품의 새로운 약속이 담겨있는 이름이다.

제일식품은 지난 8월 31일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신청하였으며,

'생생가득'은 내년 1월 1일부터 군납뿐만 아니라 시중에도 판매될 예정이다.

1991년 첫 선을 보인 후 약 20여 년간 전군에 보급되어 장병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맛스타'는 그동안 군에 주스류 10억여 캔, 잼 2,500만여 캔, 참기름 1,000만㎏을 생산, 납품하여 장병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왔으며, 예비역들에게 맛스타는 이름만 들어도 군 시절의 아련한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군을 대표하는 상표였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이 하나의 선입견으로 자리 잡아 맛스타가 과거의 제품을 그대로 내놓고 있다는 소비자들의 부정적 인식이 부담으로 다가와 금번에 시대에 맞게 새로운 상표와 디자인을 하게 된 것이다.

주스 신제품의 경우 용기를 철재 캔(3PC)에서 알루미늄 캔(2PC)으로 교체함에 따라 무게가 23g이

나 가벼워졌고, 먹고 난 뒤 용기를 처리하기도 손쉬운 뿐 아니라 생산원가 면에서도 캔 1개당 10원의 원가 절감으로 연간 5억 원을 절감하게 되었다.

공군 재경단 소속의 조성무 일병(21)은 "맛스타는 군에서 지은 이름이란 느낌이 드나 '생생가득'은 브랜드 명에서부터 싱싱한 과일을 넣었다는 느낌이 들고, 캔도 두꺼운 철재 캔에서 가벼운 알루미늄 캔으로 바뀌어서 먹고 난 후 처리하기도 한결 수월할 것 같아서 좋다."고 말했다.

예비역인 회사원 박성민(31)씨는 "추억의 '맛스타'가 '생생가득'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에 대해 아쉽지만 제품이 신선하다는 느낌을 주는 측면도 있고, 제품의 디자인도 일반 제품과 비교해 손색이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군인공제회 산하 제일식품은 1984년부터 군 장병들에게 주스

와 두채류(두부·순두부·콩나물), 참기름 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주스류는 원액100% 주스 4종을 출시하고 있다. 두채류는 '웰그로'라는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다. 주요 판매처는 농협 하나로 마트, 전국 국철 역사 편의점 및 자판기(코레일 유통), 일부 백화점 및 호텔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

제일식품 최명곤 사장(54)은 "2011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브랜드의 이미지에 걸맞게 제품개발과 장병들의 건강지킴이로서 품질과 위생적인 면에서도 최고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회원기념품 품평회 열어

회원선호 제품 및 우수 기능성 제품 선정



▲ 이광동 관리이사(오른쪽에서 네 번째)와 품평회에 참가한 위원들이 회원기념품을 살펴보고 있다.

본회는 지난 11월 19일 군인공제회관 30층 대회의실에서 서류가방, 배낭, 전기면도기 등 2011년도 회원들에게 드리게 될 기념품에 대한 품평회를 가졌다.

회원기념품은 회원급여저축금 1억 원 달성 회원과 20년(만240개월) 이상 가입(회원자격 유지 기간만 산정)한 후 전역 및 퇴직하는 회원, 그리고 회원 자녀 중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인정하는 대학에 입학하는 1자녀에 한해 기념품을 지급한다.

이날 품평회는 회원 선호 제품 및 우수 기능성 제품을 선정함으로써 회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국내 대기업인 S사를 포함한 6개 회사가 참여했다.

이광동 관리이사는 품평회에 참가한 위원들에게 "내 가족 내 형제들에게 주는 기념품으로 생각하고 평가하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군인공제회는 회원의 복지 증진 향상과 회원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등의 회원을 위한 일이라면

군인공제회 홈페이지 개편

회원 편의성 향상 및 보안 취약점 개선

군인공제회는 회원서비스 만족도와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회원 개인의 정보보호와 접근성 및 편의성을 높이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홈페이지 접속 환경을 제공하는 등 2011년 1월부터 홈페이지를 개편한다.

금번 홈페이지 개편은 보안 취약점 개선, 웹 표준화 및 접근성 향상, 그리고 디자인 개선과 서비스 보완 등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회원 개인정보보호와 홈페이지 소스 프로그램 보안 기능 강화이다. 회원의 공인인증서 및 휴대폰 본인 확인 기능 추가는 물론, 정보 및 국정원 지침 권고안에 준하는 소스 프로그램을 재설계하여 보안 체계를 개선 하였다.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 하겠노라."고 말했다. 품평회 등의 과정을 거쳐 선정



둘째, 웹 표준화와 접근성 향상이다. 국제적인 웹 표준 지침을 준수하고,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획득 및 정보구조 재설계, 메뉴체계 간소화 등 회원들이 본회 홈페이지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홈페이지내 모든 문자와 이미지까지 음성으로 청

취기능토록 환경을 개선하였다. 마지막으로, 회원 서비스 개선으로 이는 ID나 비밀번호 찾기 정보 입력 간소화와 뷰어 e-book 솔루션 도입, 전체 메뉴보기 기능 구비, 웹 메일과 연계된 모바일 메일 서비스 구현 등 회원을 위한 서비스를 보완하게 된다.

된 회원기념품은 2011년도부터 해당 회원들에게 지급되며, 회원들이 제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품에 대한 이미지는 군인공제회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주경아독으로 능력도 개발! 국방력도 UP!

C&C 사이버 학위과정을 통한 회원 향학열기 대단

군인공제회 예하 사업체인 C&C는 회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석사과정 특별전형을 실시, 회원들에게는 석사학위 과정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제휴 대학원으로부터는 대행 수수료를 받아 수익의 일부를 회원복지에 환원하는 '사이버 학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이버 학위 사업'은 2001년도 추진하여 2002년도부터 대학 과정과 대학원과정을 모집하여 추진해 오다가 학부과정은 교과부 지침에 따라 2007년도 초에 폐지되었으며, 석사과정은 현재까지 회원들의 뜨거운 향학열과 끊임없는 도전정신에 힘입어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현재 제휴대학별 과정은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과 공공정책대학원,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원, 세종대학교 산업대학원, 그리고 서강대학교 단기MBA(2년) 과정 등이다.

C&C는 학위과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회원들을 위해 신입생 모집 안내 광고와 각 대학에 응시자 통보,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안내, 그리고 학생 상담 등 서비스를 지원한다.

회원들이 납부하는 학비는 대학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해당 대학과 C&C간 체결한 계약에 의해 15%~30%가 기본적으로 감면이 되고, C&C에서 추천 (각군 본부, 국방부, 교과부 경과)한 회원에게는 각 대학에서 25%~30%를 추가로 감면해 주는데 이들 두 조건을 합해서 최고 50%까지 감면이 된다.

각 대학별 합격률도 매우 높다. 지금까지 50%를 약간 넘는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3개 대학은 합격률이 100%에 가깝다. 또한 사이버대학원에는 연간 300여 명의 회원들이 사이버 학위 과정을 밟고 있고, 지금까지 학부와 석사과정을 거친 회원은 총 2,600여 명이나 된다.

C&C가 시행하고 있는 '사이버 학위 사업'은 회원들에게 저렴한 학비로 개인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회원들이 납부한 금액의 10%를 수수료 명분으로 각 대학으로부터 받아 일부를 회원들의 복지 증진에 활용하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

앞으로도 군인공제회는 다양한 아이템을 발굴해서 회원들의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앞으로도 군인공제회는 다양한 아이템을 발굴해서 회원들의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앞으로도 군인공제회는 다양한 아이템을 발굴해서 회원들의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초 저금시대의 재테크

사상 유래 없는 초 저금리시대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작년 2월 기준 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2%로 내린 후 17개월만인 올 7월 2.25%로 한 차례 올렸고 다시 11월 2.5%로 또 올렸지만 시장에서는 약발이 먹이지 않는 분위기다. 은행 수신금리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좀처럼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반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 8월 이후 3.6%(9월), 4.1%(10월), 3.3%(11월)로 고공행진 중이다. 물가상승률과 세금을 더할 경우 실질금리는 이미 마이너스로 떨어진 지 오래다.

하지만 시중에 넘치는 유동성은 좀처럼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일부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코스피(KOSPI) 지수 2000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동시에 은행 수신도 급증하고 있다. 금리가 낮아도 마땅히 돈 굴릴 데가 없기 때문에 은행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초 저금리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재테크 전략은 무엇일까. 사실 따로 왕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투자의 고수들은 금리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시기엔 잊고 지내던 세금효과에 관심을 가지라고 조언한다. 즉, 가능하다면 세금을 덜 내는 금융상품에 가입해 절세를 통해 수익률을 제고하는 방법이다.

세금우대는 20세 이상 성인

에게 제공되는 절세혜택으로 모든 금융기관에 예치한 1년 이상 예적금에 대해 1000만원 한도로 이자소득세를 감면(15.4% → 9.5%)해 준다. 또 60세 이상이면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농협 단위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에서는 3000만원까지 농특세 1.4%만 부과하는 비과세예탁금도 판매중이다. 단 상호금융기관 예금 가입을 위해서는 먼저 해당 기관의 조합원이 돼야 한다. 조합, 금고마다 소정의 출자금만 내면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난 호에서도 언급했듯이 군인 및 군무원들에게는 군인공제회의 회원급여저축을 권장하고 싶다. 월 최고 150구좌(75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는 회원급여저축은 현시점 기준 평균 연 6.1% 이율을 복리로 지급할 뿐만 아니라 세제혜택도 받는 매우 우수한 상품이다. 또한 목돈을 1~2년 단위로 저축할 수 있는 목돈수탁저축도 추천하고 싶다. 현재 회원이거나 과거 회원으로 1년 이상 가입한 후 전역(퇴역)한 사람이 저축할 수 있는 목돈수탁저축도 최저 100만원부터 최고 5억 원까지 수탁이 가능하며 이율도 2년 만기 상품은 세전 연 5.25%, 1년 만기 상품은 세전 연 5.0%로 매우 높은 편이다.

매일경제신문 정석우 기자

법률상식

●가해차량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 경미한 부상 및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합의 제안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보험사와의 합의는 통상 퇴원 후 2~3개월 정도 몸 상태를 지켜보며 후유증여부를 살핀 다음에 신중하게 하는 게 바람직 함.

비록 보험회사와 합의 종결된 사안이라도 합의 당시에 예상치 못했던 후유증 발생 시에는 이에 대해 별도의 보상 청구할 수 있음.

교통사고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의 단기 시효(종합보험 2년)인바, 그 시작은 사고가 발생되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보지만, 새로운 후유증에 대하여는 그것을 안 때로부터 계산하기에 결국 그 이후 까지는 시효가 살아있음.

비록, 실무상 새롭게 나타난 후유증에 대해서는 입증하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합의할 당시 예상치 못했던 후유증에 대해선 주장 할 수 있으므로 합의 자체가 끝났다고 볼 수 없음.

병원비 등 각종비용, 위자료 등

은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정도를 판단, 금액은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를 보면 되며, 만약 합의가 안 될 경우 소송으로써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음.

●도난당한 신용카드 비밀번호 유출피해 시 카드 회원(주인)이 무과실 입증해야 함.

J씨는 만취상태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하였고 나중에 카드분실 사실을 인지 후 카드거제를 정지시켰으나, 그 사이 K은행 ○○○지점에서 10회에 걸쳐 700여 만원이 인출되는 피해를 입었음.

이에 J씨는 K은행을 상대로 피해금액을 돌려달라는 강제집행신청을 냈고, 은행은 '비밀번호유출로 인한 부정사용이 있을 때 모든 책임은 고객이 진다'고 규정한 카드약관을 들어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청구이의소송을 냈음.

1심은 "피고가 범인의 사진을 보고도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고, 비밀번호도 군대식별번호로 지정해 지갑 내에 있는 어떤 정보로도 비밀번호를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비밀번호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유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은행책임을 60%로 보고 42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음.

그러나 2심은 "범인이 비밀번호를 단 1회의 오류도 없이 한 번에 입력해 현금서비스로 돈을 인출했고, 피고가 만취상태에서 무의식중에 비밀 번호를 알려줬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며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음.

대법원은 "회원약관규정에 의할 때, 회원은 신용카드의 이용·관리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상당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할 의무가 있다."며 "신용카드를 분실·도난당해 제3자가 부정사용한 경우 회원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회원에게 신용카드의 분실·도난 및 비밀번호 누설에 있어 아무런 과실이 없어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회원에게 있다."고 판시했음.

(대법원판결 2009. 10. 15)

●작고하신 부모의 채무 승계 여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신고 또는 '한정승인' 신고를 법원에 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변제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됨.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을 전혀 받지 않는 것이며, '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고도 남은 것이 있을 때에만 상속을 받는 것임. 고인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것이 명백할 때에는 상속인이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채무초과 여부가 불분명 할 때에는 '한정승인' 신고를 하면 됨.

따라서 법정기일을 넘기거나 법원의 절차를 밟지 않으면 원칙적으로는 고인의 채무초과 여부와 상관없이 재산과 동시에 채무를 상속인이 상속받게 됨.

그러나 3개월이 지난 후에도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음. 즉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서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없었던 경우 상속인은 채무초과사실을 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문답으로 알아보는 군인공제회

● 생활자금대여가 전역 후에도 주택을 담보로 가능한가?

▶ 생활자금 대여는 본회의 회원을 위하여 회원급여저축금을 담보로 대여하고 있음. 따라서 전역을 하게 되어 회원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대여를 받을 수가 없음. 또한 본회는 금융기관과 같이 주택을 담보로 대여를 할 수가 없음.

● 신청안내가 제대로 안되어서 자녀 대학학 축하금을 못 받은 회원들이 많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자녀 대입축하금은 매년 3월초 입학일을 기준으로 6년 이상 회원 가입자에게 지급되며, 지급신청 서류 접수는 우편 또는 분회방문을 통하여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있고, 대입축하금 지급에 관한 홍보는 국방부(복지정책과)에 안내 공문을 발송하여 국방부 예하 각급기관 및 군부대에 매년 하달하고 있음. 또한 국방일보에 2~3회, 분회 홈페이지 및 회보에 연중 게재하고 있으며, 컨택센터에서 대입축하금에 대한 상담 지원과 재무설계사(PF) 요원이 각급부대 순회홍보 시 대입축하금 등 복지제도에 대하여 연중 홍보하고 있음. 향후에도 회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 및 공지하겠습니다.

● 군인공제회에서는 수도권에만 회원아파트 분양을 하는데 사령부급이 위치한 지방에도 회원아파트를 분양해야 하지 않은가?

▶ 분회에서는 과거 부산 해운대, 대구 용산동, 마산 월영동, 광주 상무대, 대전 문화동, 천안 불당동 등에 아파트를 공급 한바 있으며, 국회에서 전방지역에 공급이 부족하다는 요구가 있어 최근 춘천 만천리 지역에도 회원아파트를 공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회원들께서 전역 후 생활, 자녀교육, 문화시설 혜택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지역을 선호하고 있으나, 향후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분양지역을 고려하도록 하겠음.

● 공제회에서 회원에게 분양한 아파트는 전매가 가능한가?

- ▶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는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다음 하나의 기간에 도달한 때
 - 수도권의 행정구역에 속하는 지역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때. 이 경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함.
 - 그 외 지역의 경우 1년
-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다음 하나의 기간에 도달한 때
 -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 공공택지 안에서 공급되는 주택 :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0년,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7년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7년,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5년
 - 그 외의 지역의 경우
 - 공공택지 안에서 공급되는 주택 :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년,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3년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투기과열지구안의 주택 : 충청권(대전광역시·충청남도 및 충청북도)의 경우 3년, 그 외의 지역의 경우 1년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투기과열지구 밖의 주택 : 6개월

● 회원분양 신청 시 신청서 및 서약서 등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가?

- ▶ 분회 홈페이지 (<http://www.mmaa.or.kr>) 맞춤형주택정보 분양신청안내에 [유의사항/구비서류]와 [관련정보 다운로드]에서 각각 다운로드 받으면 됨.
- ▶ 모델하우스 신청 접수 시 현장에서도 배부하고 있음.

● 회원이면 누구나 거주지에 관계없이 회원아파트 신청이 가능한가?

- ▶ 분회에서 분양하는 회원아파트는 관련법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하게 되어 있음. (단, 현역 군인회원일 경우는 거주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분양 신청일인가? 사업 승인일인가?

- ▶ 입주자 모집공고일이란 국방일보 및 공제회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모집공고문을 게재하는 날을 말함.

● 중도금 대출은 어떻게?

- ▶ 분회가 알선한 대출은행으로부터 총 분양가 중 (중도금 약정금액)한도 내 대출을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음. (단, 수분양자의 대출결격 사유로 대출불가능 또는 대출금액 축소와 정부 정책에 따라 대출금액이 축소 될 수 있음.)

● 군인공제회는 부동산개발사업이 많아 고전하고 있고,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개발사업을 중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권에 얽매어 청산을 못하고 있다는

인·사·동·정

● 국우터널 최상문 사장



국우터널사업소 사장 최상문

국우터널 사장에 지난 1일 최상문(55세, 공사 26기) 예비역 대령이 12월 1일부로 취임했다. 최상문 사장은 공군본부 획득과장, 공군교육사 군수학교장, 군수사 참모장 및 41보급창장 등을 역임했다.

데 사실인가?

▶ 부동산 개발사업의 투자규모는 전체 자산의 37%인 27,728억원으로 이 중 개발사업에 17,748억원 (22.5%), 회원주택사업에 9,980억원이 투자되어 운용되고 있음. 부동산 개발사업은 도시개발사업이 4~6년, 일반 아파트 또는 공동주택사업이 2~3년 정도의 투자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이권에 얽매어 청산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기간 미도래 사업으로 기간 만료 시 안정적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현재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라 자산의 안정성 및 분회 유동성 확보를 위해 장기 투자 사업은 시행사, 시공사, 금융권과 협의의 Re-Pf를 조기 회수 등 수익실현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신규 사업개발은 현 시장 환경을 고려 도시개발 사업 등 장기투자 사업을 지양하고 수익형 부동산 특세시장 및 정부 주도의 신 성장 동력 사업 등 단기 수익실현이 가능한 양질의 우량 사업에 투자,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여 회원 복지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음.

www.mavel.co.kr

[국방품질 인증서]

저희 군인공제회(대양산업)에서는 전통적인 우수한 수제화 제품을 개발하여 생산하고 있으며, 발이 편안하고 오래 신을 수 있는 최고의 제품을 주문형태로 직접생산,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 국방품질인증서 획득업체 ▶ 우체국장터상품 등록업체 ▶ 단체구매시 가격할인

한국에서 만든 수제화

군인공제회
대양산업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촌동 81번지
Tel. 042) 931-2752/935-2752
Fax. 042) 931-2769